2010년 11월 11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 회원 여러분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전무이사 우치다 야스히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의 SPF 및 UVA에 관한 표현에 대해**

귀하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서는 SPF 측정법 기준을 자발적 기준으로 작성하여 1992년 1월부터 발효하였습니다.

작성한 이유 중 하나로 당시 일본에서 SPF 측정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수치의 SPF를 표시한 제품에서도 효과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 소비자를 혼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기 대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SPF 측정법 기준은 여러 번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더불어 UVA 측정법 기준도 마련되어 오늘까지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통일된 측정법 기준의 설정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은 해소되어 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한편, 수년 전에 EU 위원회가 특히 “UVA 차단 효과”에 중점을 둔 로고 표시나 주의 표시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권고(Recommendation)”로서 제시했기 때문에, EU 각국에서는 이에 준하여 표시된 화장품이 유통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EU 각국에서 제조되어 이 주지에 따라 표시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이 최근 일본에서도 유통되게 되었는데, 추가로 일본 국내에서 이 표시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계발 활동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U 각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 표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경 없이 유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표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발하는 것은 일본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기 EU 위원회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EU 각국에서 적용되는 생각이며, 이 내용을 계발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이른바 우수하다는 오인에 상당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은 상기 사례에 국한하지 말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활동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